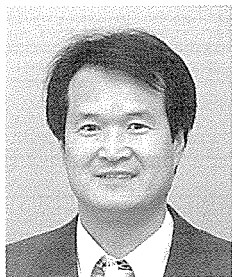


# 과학보도강화로 경쟁력 살리자

새정부는 정부조직을 대폭 축소 개편하는 와중에도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확대했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우리 언론내의 과학기술분야는 계속 축소 조정되고 있다. 많은 매체의 과학기술 관련부서가 경제 문화 부서의 일부로 또는 1개 담당으로 ... 이러한 언론체제하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경제재건 및 IMF 조기졸업은 어려울 것이다. 우리 언론은 지난날 과학기술분야에 할애했던 관심과 열정을 살려야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尹在錫  
〈前중앙일보 심의위원〉

못지 않게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언론 내에서의 과학기술분야의 위축'에 관한 우려 때문이기도 했다. 지난 몇년간 주요 일간신문과 방송·통신의 과학기술담당 부서는 꾸준히 축소 일로를 걸어왔다. 많은 매체의 과학기술 관련부서가 경제나 문화부서의 일부로 또는 1개담당으로 또는 점임으로---

## 언론사 과학부서 축소

6월말 현재 일간신문·방송·통신 등 23개 중앙 언론사에서 과학기술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겨레신문·국민일보·매일경제·한국방송공사·연합통신 등 5곳.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을 한데 묶은 부서를 운영하는 언론사(동아일보·내외경제)를 포함해도 7곳에 불과하다.〈도표 참조〉 불과 수년 전만

**지**난 1월31일 20년 기자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으로, 또한 기자생활의 절반을 과학담당기자로 지내면서 나름대로 과학기술 분야에 애정과 긍지를 갖고 일해 왔던 터라 낙담의 심도도 그만큼 깊었다. 낙담의 근원은 물론 '먹고 사는 절박함'이라는 개인적 이유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에

해도 대부분의 종합 일간신문들이 과학기술부서는 물론, 정보통신관련 부서까지 독립시켜 경쟁적인 팽창을 시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다. 우리 언론의 냄비근성을 과학기술부서의 부침(浮沈)에서도 확연히 볼 수 있는 것이다.

## 과학기자 退出 러시

언론사들의 이같은 축소지향적 과학보도 성향은 지난해 불어닥친 IMF사태에 편승하면서 몇차례의 구조조정을 통해 급기야 얼마남지 않은 과학기술 담당기자조차 거리로 내모는 사태까지 초래하고 말았다. 한국과학기자클럽이 발간한 뉴스레터 최근호에 동정기사를 유난히도 많이 실어야 하는 슬픈 현실도 바로 이로 인해 야기된 사태이다. 언론 과학기술 분야 부서와 인력의 위축은 필연적으로 해당 매체에서의 과학기술 관련 기사의 축소를 의미하며 그것은 곧바로 독자(국민)들에 대한 과학기술 정보전달 소홀로 이어진다. 이같은 도미노현상이 초래할 결과는 어떤 것일까.

사실 어느 연구소의 과학자 한 사람이 이룩한 첨단연구실적이 국민대중에게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을 가질 것이며 그것으로 국민대중에게 무슨 유익을 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법도 하다. 그러나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보도만을 놓고 이같은 추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경솔하고 위험천만한 것임을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과정을 통해서 쉽게 일람할 수 있다.

역대 정권이 '과학기술이 중요하

다 '우리의 살길은 과학기술을 꽃피우는 것 뿐이다' 라는 등의 레토릭(修辭)을 입버릇처럼 외쳐 왔지만 80년 군부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노태우정권을 거쳐 나라 공간을 거덜내고 온 국민의 원성 속에 무대 뒤로 사라진 김영삼정권에 이르기까지 기실 과학기술은 국가 경영의 지렛대를 장식하는 액세서리에 불과했을 뿐 한번도 主役을 한 적이 없었다.

따지고 보면, 어느날 갑자기 비명에 간 故박정희대통령을 빼고 대한민국 건국 50년동안 과학기술 진흥에 뜨거운 열정과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지도자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

은 아니다.

이처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과학언론 분야는 보도의 다양화와 질량적 품질 제고를 통해 국가과학기술 발전→고도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한강의 기적' 신화 창조에 조력자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고속 경제성장의 이면에 적극적인 과학언론의 뒷받침이 있었음은 지난 30여년 우리의 과학기술을 이끌어온 과학기술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 한국의 언론계에서 볼 수 있는 과학언론인의 대학살은 끝간데를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의 소홀

은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해야 할 관련 연구분야와 산업분야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고 그것은 국가경쟁력의 취약화로 이어진다. 그래서 국가 경제는 다시 침체를 부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IMF체제의 졸업은 요원하게 되고---

집단이기주의의 시각을 무릅쓰고 이같은 절규를 외치는 것도 바로 이같은 충정 때문인 동시에 과학언론이 이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숨은 공로자였다는 자긍심 때문이다.

### 과학언론 원상회복 시급

새정부는 출범 직후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축소 개편하는 와중에서도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확대하는 용단을 내렸다. 최근엔 과학기술부를 미래부로 바꾸겠다고 까지 천명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언론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과학기술 분야를 축소일변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언론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거둬 통탄하거나 이같은 언론체제 아래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경제재건 및 IMF 조기졸업은 꿈도 꿀 수 없음을 단언한다. 한국언론은 지난날 과학기술분야에 할애했던 관심과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이제라도 언론이 과학기술의 현장을 세세히 알리고 또한 과학기술자들의 업적을 고무하면서 이를 산업과 접목시키는데 일조한다면 머지않아 도탄(塗炭)에 빠진 경제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우리는 명실공히 선진국을 향한 힘찬 전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㉞

언론사 과학기술부서 변천

언론사	'96년	'97년	'98.6(현재)
경향신문	생활과학부	정보과학팀	경제부
국민일보	생활과학부	생활과학부	생활과학부
동아일보	과학부	정보과학부	정보산업부
문화일보	과학환경부	과학부	과학타임즈팀
서울신문	과학부	과학정보부	문화과학팀
세계일보	과학부	경제과학부	경제과학부
조선일보	경제과학부	경제과학부	경제과학부
중앙일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정보과학부 생활부	생활부
한겨레신문	생활과학부	생활과학부	생활과학부
한국일보	과학부	정보과학부	문화과학부
연합통신	과학부	과학부	과학부
내외경제신문	정보과학부	정보과학부	정보유통부
매일경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서울경제신문	산업1부	산업1부	산업1부
한국경제신문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과학정보통신부
한국방송공사(KBS)	과학부	과학부	과학부
문화방송(MBC)	문화과학부	문화과학부	문화과학부
서울방송(SBS)	문화과학부	문화과학부	경제부
기독교방송(CBS)	사회부	사회부	문화체육부
매일경제TV(MBN)	산업부	산업부	산업부
YTN	경제부	경제부	경제부
코리아헤럴드	사회부	경제부	경제부
코리아타임스	사회부	사회부	사회부